반란 일으킨 2위 한화·부상자 속출 속 주춤한 KIA

LG는 완벽한 투타 밸런스 앞세워 선두 독주
3위 KT·4위 롯데도 선전… 삼성·SSG는 하락세

2025시즌 KBO리그가 개막한 지 어느덧 한 달째를 맞았다. 저력을 보여준 한화 이글스, 예상 밖으로 고전한 KIA 타이거즈 등 시즌 초반 10개 구단의 희비가 엇갈렸다.

현재 순위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팀은 단연 한화다. 시즌 전적 14승 11패로 2위에 올라있다. 아울러 최근 기세도 무섭다. 최근 11경기에서 10승(1패)을 수확했고, 지난 13일 대전 키움 히어로즈전부터 20일 대전 NC 다이노스전까지 내리 7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한화는 강력한 선발 투수진을 앞세워 상승세를 이어갔다. 7연승을 달리는 동안 한화 선발 투수들이 모두 승리를 거둬 24년 만에 7경기 연속 선발승을 기록했다. 코디 폰세와 문동주가 각각 2승씩을 따냈고, 라이언 와이스와 류현진, 엄상백은 각각 1승씩을 챙겼다.

반면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일군 KIA는 주춤했다.

시즌 성적 11승 12패로 6위에 머물러 있다. 팀 내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연달아 이탈한 것이 치명타였다.

지난 시즌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도영은 시즌 개막전에서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박찬호, 베테랑 2루수 김선빈, 필승조 왼손 투수 곽도규도 연이어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다.

악재를 맞은 KIA는 지난 12일 최하위까지 떨어졌으나 박찬호와 김선빈이 복귀해 전열을 가다듬었고, 2연속 위닝 시리즈(3경기 중 최소 2승)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더욱이 김도영이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정상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김도영은 이르면 25일 1군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시즌 초반부터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LG 트윈스는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23경기에서 18승 5패의 성적을 내며 순위표 최상단에 위치했다. 승률이 무려 0.783에 달한다.

팀 타율(0.280), 장타율(0.421), 출루율(0.377) 부문에서 모두 1위, 평균자책점(2.96), 홈런(24개) 부문에서 각각 2위에 오를 만큼 완벽한 투타 밸런스를 뽐냈다.

상위권 전력으로 평가받았던 KT 위즈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도 순항을 펼치고 있다.

KT는 12승 1무 10패로 3위, 롯데는 13승 1무 11패로 4위다. 두 팀 사이에 승차는 없지만, KT가 승률이 더 높다. 2위 한화와 격차는 불과 0.5경기 차여서 22일 경기 결과에 따라 2위 도약이 가능하다.

반면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 두산 베어스, NC, 키움은 만족스럽지 않다. 시즌 전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삼성은 12승 12패로 5위다.

최근 10경기에서 3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SSG(10승 11패) 역시 지난 10경기에서 3승 7패에 그쳐 순위가 2위에서 7위까지 추락했다.

8~10위에 자리한 두산(9승 13패)과 NC(7승 12패), 키움(8승 17패)은 반등이 절실하다. 나란히 연패 수렁에 빠져있다.

/뉴시스

순천시, 전라남도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우승'

배구, 소프트테니스, 축구, 족구 1위 등 전 종목 골고루 상위권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장성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 22개 시군 7,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전남체전에 순천시는 23개 전 종목, 376명(선수 237명, 임원 1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기량을 펼치며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순천시는 2024년 종합우승을 차지한 이래 2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종목별로는 배구, 소프트테니스, 축구, 족구에서 1위를, 탁구, 골프, 궁도, 농구, 바둑, 복싱에서 2위를, 유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종목에서도 골고루 상위권을 기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땀으로 각오를 다지고, 열정으로 준비해 온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준 선수단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여러 대회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노력이 2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전남 제1의 도시답게 순천의 품격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체육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순천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여수시가 2위, 광양시가 3위를 각각 달성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주시, 10월 11일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연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 화순·담양 일원서
4월28일~5월27일 선착순 모집… 5·18코스 등 총 1450명
공룡화석지 탐방 코스도… 시상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남도·담양군·화순군 등과 함께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7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11일 화순과 담양 일원에서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18코스' 450명을 포함해 전국 1450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마라톤대회 코스는 30㎞ 코스, 하프(Half) 코스, 10㎞ 코스, 5.18㎞ 코스, 2㎞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대회 당일 오전 8시10분 화순 금호화순리조트 앞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해 담양 가사문학면 인암삼거리를 지나 다시 금호화순리조트로 돌아오는 코스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을 주제로, 서유리 공룡화석지를 탐방하는 '지오트레일 2㎞ 걷기 코스'를 신설,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오해설사의 교육 코스도 만들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윤여춘 해설위원(대한육상연맹부회장)과 '2023 동아마스터즈·2024 지오마라톤대회' 우승자인 로버트 허드슨 홍보대사와 함께한다. '보고 달리고 즐기자'라는 슬로건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달리고 즐기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달림이 대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대회는 광주MBC 지상파 TV와 유튜브를 통해 3시간 생중계된다.

유튜브 중간에는 담양 한과와 화순 오란다과자, 광주 주먹밥과 전남 농협 친환경쌀 등 지역의 특별한 먹거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대회 시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3회 대회 때 호평을 받았던 운영위원회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하는 '줍깅 캠페인'을 확대, 클린 마라톤을 계속 실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4월28일부터 5월27일까지 한달간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접수는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 누리집(http://georun.kr)으로 하면 된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대회는 무등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알리는 이색대회가 될 것이다"며 "마라톤 참가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완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나주시청 사이클팀이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여자 일반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나주시청 사이클팀, 올해 전국대회 2연패… 실력 입증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여자 일반부 종합우승

나주시청 사이클팀이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여자 일반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정상 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나주시에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실력 있는 사이클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여자 일반부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효민 선수는 단체추발·1km독주·1LAP에서 2위, 팀 스프린트 종목에서는 압도적인 팀워크로 1위를 기록하며 팀의 종합우승을 견인했다.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제24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한 이후 또다시 정상에 올라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물론 감독과 코치의 지도력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열린 두 개의 전국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일궈낸 나주시청 사이클팀 장연우 감독은 '제24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최우수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주/이명열 기자